



티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당 오두막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오두막은 쌍둥이 동생인 팀과 노는 놀이터다. 포르쉐 팬인 두 사람은 오늘도 포르쉐 이야기를 한다.

**전기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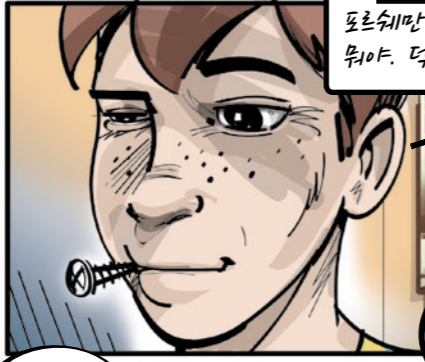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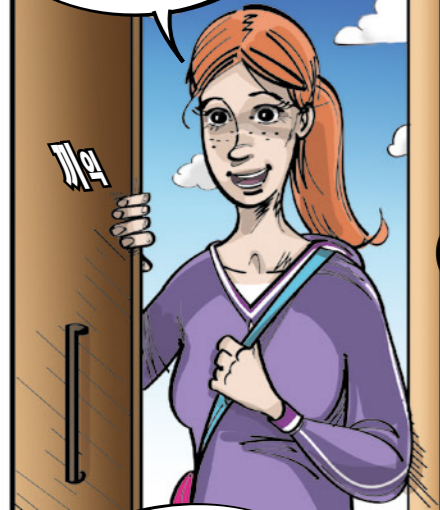
팀이 또 뭐하나보네? 뭔지 알겠다.



너무 높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응! 스피디야. 이 조그만 카레에서 너석이 포르쉐만 잘 아는 줄 알았더니 나사도 잡아주지 뭐야. 덕분에 빨리 끝낼 것 같아.

팀! 선반 다는 소리 한번 요란하다. 방에까지 들려. 어? 누가 도와주고 있네?



무선 드릴까지 있으니 정말 쉬워.



이쯤이야 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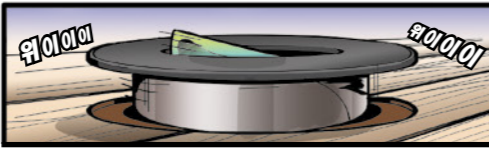
충전식인데도 그렇게 회전력이 세?



맞아. 바로 그거야. 전기와 모발리라고 하니,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있어.



스피디는 레이싱볼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



... 그러자 바닥에서 입체영상 장치가 올라와 포르쉐 팬들의 세상을...



... 두근거리게 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새로운 순수 전기자 포르쉐 타이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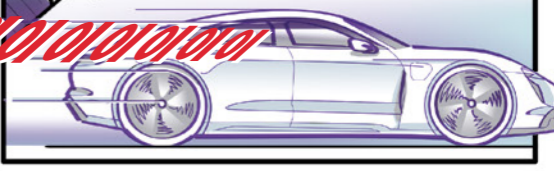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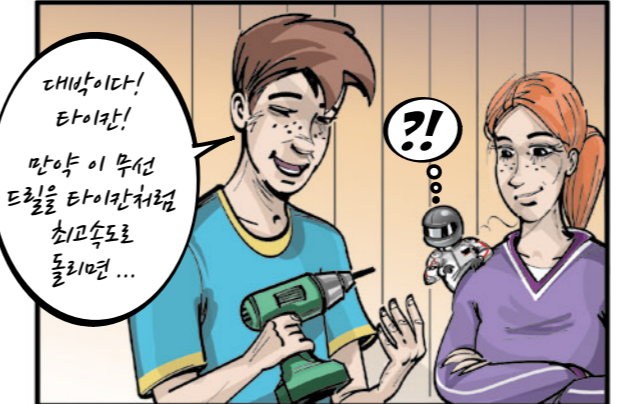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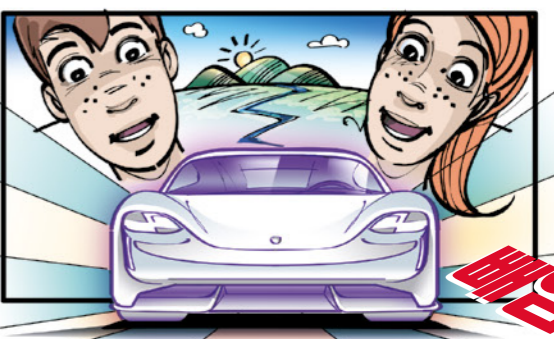
주변아우젠에서 온 슈퍼카군!

타이칸의 강력한 엔진은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속도를 내기까지 3초도 안 걸리니까 거의 로켓이라 할 수 있지. 최고 속도는 무려 250km가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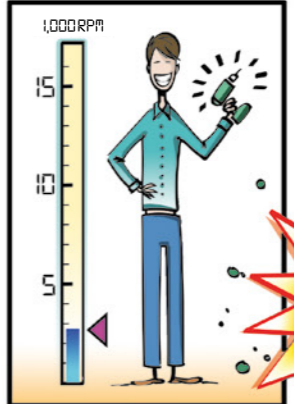


포르쉐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바로 환경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지. 물론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대박이다! 타이칸! 만약 이 무선 드릴을 타이칸처럼 최고속도로 돌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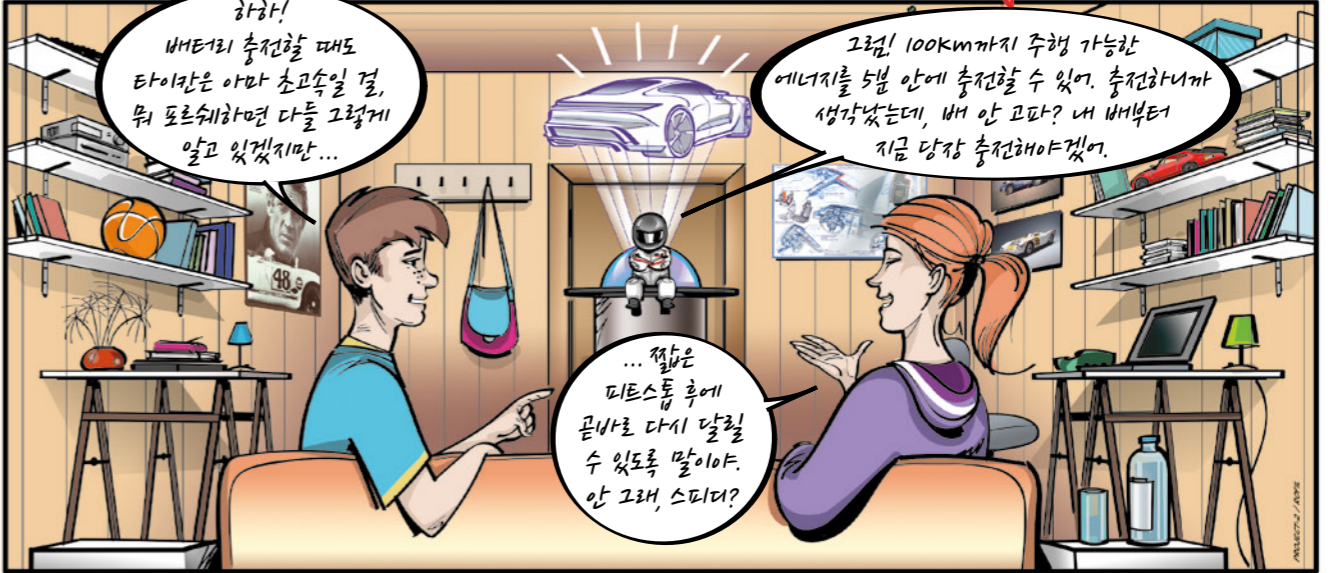
?!



... 금방 방전될 텐데.



**핑**



하하! 배터리 충전할 때도 타이칸은 아마 초고속일 걸, 뭐 포르쉐하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100km까지 주행 가능한 에너지를 5분 안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하니까 생각났는데, 배 안 고파? 내 배터리 지금 당장 충전해야겠어.

... 절친은 피트니스 후에 곧바로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말이야. 안 그래, 스피디?